



◇선규가 부모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웃고 있다.

17세 가장 선규의 소박한 꿈

“부모 병세만 호전된다면”

3평짜리 지하 단칸방. 온종일 햇빛조차 들지 않는 이곳에서 6년째 17살 선규네 가족이 살고 있다.

바느질을 시작했다. 10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꺾씨는 손발이 붓고 굵아 터져 얼얼 보기에 병세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아빠 고혈압 엄마 당뇨

이번에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한 선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저녁 준비를 한다. 밀렸던 설거지는 보통 저녁을 준비하면서 한다.

선규네 가족은 지난 96년 상계동 판자촌이 재개발되면서 쫓겨나온 뒤, 지금의 지하 단칸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 이후 그나마 양씨의 막노동으로 버텨오던 선규네 살림은 3년 전 양씨가 고혈압이 심해져 아예 일을 놓게 되면서부터 수입이 전혀 없는 처지로 전락해버렸다.

지원금 28만원으로 풀칠

“아버지 어머니 병세만 호전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저야 젊으니까 몇 끼 굶어도 괜찮은데,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선규는 아버지가 쓸 짚질 고무뱀에 온수를 넣어 한다며 부엌으로 나갔다.

주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68-48 신아빌라지 지층 207호

후원방법: 전화 02-938-8421

계좌 기업은행 282-030444-02-010(예금주 양선규)

김철우 기자 m-gan@buddhapia.com

- 3월 8일 (금)
■타악 퍼포먼스 '야단법석' = 전 통타악연구소. 예술단이 벌이는 타악 퍼포먼스 '야단법석' 스님들은 자기 개성에 맞는 악기를 골라 연주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규칙이 없고 박자도 맞지 않지만 점차...
공연은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은 오후 4시, 7시 연강홀. (02) 708-5002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강좌' = 문화재 전문위원 안귀숙 씨, 동국대 정우택 교수, 서울대 고고미술학과 이주형 교수가 강의하는, 가람배치, 탑, 부도, 불상, 불화 등 불교 예술에 관한 강좌가 열린다.
문화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

신행 캘린더

- 다보면 어느새 불교미술의 심오한 세계에 흠뻑 빠져들 것이다. 오전 10시 30분 서울 불광산사 3층 강의실. (02)587-6613
■은평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금연특강' = 을 정초에 세운 금연 결심, 해로운 줄 알면서도 정작 끊기 어려운 담배를 끊는 방법을 알려준다.
강의는 오전 10시 30분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02)385-1351
3월 9일 (토)
■터사랑 '성지순례' = 초봄을 맞아 지리산 화엄사와 연곡사로 떠나는 성지순례.
화엄사는 신라 고승 의상대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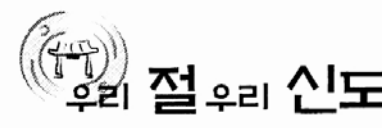
◇도자기를 빚고 있는 불자들.

화엄사상을 펼친 화엄10찰 중 하나. 불내음도 맑으며 광양 대화마을, 구례 산수유마을을 함께 둘러본다.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후 9시 30분 안국역 4번 출구. (02)725-1284
■마야문화원 '도자기교실' = 어린 시절 흙장난의 추억을 되살려 취미생활을 하며, 쓸모있는 일상

- 생활용품도 직접 제작해보자.
이번 강좌는 도예가 이경미 씨의 지도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인사동 문화원에서 열린다. (02)722-1050
3월 11일 (월)
■참나찾기교육원 '무료참선교육' = 도심 속에서 참선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 참선수련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보자.
일상생활에 바쁜 도시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박민수 원장의 지도로 오후 7시 수색동 교육원에서 진행된다. (02)3152-4420
3월 12일 (화)
■법장사 시민불교교양대학 '불교기초강좌' = 불교예절, 불교사상,

불교문화, 부처님의 일상...
불교에 대해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자. 퇴휴스님, 신공스님이 의심을 확실히 풀어줄 것이다.
참가비 4만 5천원. (02)971-0303
3월 13일 (수)
■보리수선원 '남방불교 근본사상강좌' = 위빠사나 수행으로 유명한 보리수선원은 오후 7시 30분 김재성 법사를 초청, 남방불교의 근본사상에 대한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남방불교의 교리와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자료는 스리랑카 아나틸푸카 스님이 쓴 '붓다의 말씀', 수강료는 무료. (02)517-2841

“이승 떠나는 날까지 따주기봉사할 터”



수호사 '짜가엄마' 서금순 보살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짜가 엄마 있어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수호사 신도들은 신경통, 두통, 요통 등이 도지면 약손인 ‘짜가엄마’를 찾는다. ‘짜가엄마’? 무슨 뜻일까.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 하지만, ‘진짜같은 짜가엄마’란 뜻이라고 설명 들으면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고개를 끄덕인다. ‘짜가엄마’는 아프거나 고민이 생기면 속 시원히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정도로 엄마같이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고 신도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이 별명의 주인공은 바로 서금순 보살(66). 그 별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수호사의 모든 행사는 서보살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

부터 펼쳐왔던 수호사에는 서보살 말고도 1백여명에 달하는 봉사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서보살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내 병처럼 아파하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기에 성심성의껏 치료해 그의 손만 거치면 웬만한 통증은 씻은 듯 사라진다고 시술을 받아본



◇수호사에 법회 보러 온 신도가 많이 아프다고 말하자 즉석에서 따주기 봉사를 하고 있는 서금순 보살(왼쪽).

침주머니 들고 전국 군부대 누벼

108성지순례 단장...답사 준비·진행

신도들은 말한다.
“아픈 이들에게 제 조그만 재주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가는 군부대 따주기 봉사 때는 하루전부터 내 손이 약손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서보살은 파주, 문산, 철원, 화천 등 전방 부대라면 7년동안 안가본데 없을 정도로 침주머니를 들고 전국을 누볐다. 비록 한달에 한 번이지만 아들같은 군장병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하루종일 전력을 다한다. 하루에 7-8명 정도를 시술하다보면 봉사

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옷에 땀이 흥건히 배일 정도로 몸이 축 늘어진다. 하지만 서보살은 침 봉사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전직으로 알고 한사람 한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서보살의 봉사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호사에서 한달에 한 번씩 펼치는 인근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에서도 신경통이나 두통이 있는 노인들에게 정성껏 따주기 봉사를 한다. 또 동네 사람들에게도 종교를 초월해 아픈이가 있으면 따주기와 부항치료를 마다하지 않는다.
“불자들이 따주기법을 배워 봉사

하기 위해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기가 힘들다보니까 몇 년 못가서 봉사를 그만두는 이들이 더 많지요. 나는 이 봉사를 하면서 보살행을 펼쳐며 살라는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새롭게 가슴에 새기게 됐습니다.”
서보살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호사가 지난해부터 신도들의 기도 순례를 위해 시작한 '108 성지순례' 행사에서도 단장을 맡아 답사 코스와 준비, 진행까지 1인3역을 맡고 있다. 순례에 동참한 신도들에게는 팔을 걷어부치고 직접 떡과 과일을 나눠주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회향을 다하는 날까지 따주기 봉사를 비롯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일이든지 몸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남을 위해

추천의 말

무구 스님 서울 수호사 주지

수호사는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따주기 요법을 체계화해 치료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의 군부대나 교도소 같은 일반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 아픈이들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1백여명 봉사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중 서금순 보살은 봉사자 중에서도 여려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환자들에게는 치료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포교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어린 신도들에게는 아მა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함께 고민해주는 상담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훌륭한 점은 보살행을 펼치고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고 작은일에서부터 몸소 실천하려고 애쓰는 불자라는 사실입니다.

봉사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헌신하는 봉사를 인정받아 수호사에서는 서보살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

나라다상장불학원은 불교교양대학, 불교대학·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전문불자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들과 법사·포교사 및 불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사)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개설한 특별교육기관이다. 과목별 특강으로 경·율·논·선·밀교·의식 등 각 과목별로 한 과목씩 이수하여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며 스님들에게는 일어·영어·중국어 어학코스도 병설, 외국유학을 갈 수 있도록 추천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교육기간을 거쳐 수계하도록 하며 일반 사찰과 포교기관에 나아가 전법도생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다.

- 모집과정
사미과(沙彌科) : 사미율의·초발심지경문·치문경훈·천수경·반야심경·아함경·예불의식·법회의식
사집과(四集科) : 서장·도서·선문철학·방등경·계율해설·비교종교학·구사론·장례의식·방생의식
사교과(四教科) : 능엄경·공감경·원각경·반야경·기신론·유식론·교단사·불공의식·기도의식
대교과(大教科) : 법화경·화엄경·정토사상(미타, 약사, 미륵, 밀교)·선문염송·전등록·삼론·교리발달사·제사의식
특별과정(외국어학과) : 영어·일어·중국어(회화중심)
■ 교육기간 : 2년(과제별 선택, 통신반 가능)
■ 개강일시 : 2002년 3월 9일 오후 2시
■ 교수진 : 한정섭 박사, 김호양(한국불교통신대학원장), 남진각 스님(LA 대각사주지) 오형근 교수(전 동국대불교대학장), 최종안 교수(중앙승가대학 교수), 진하 스님(예술대학 주임교수), 해인 스님(신홍사 주지) 외
■ 강의시간 : 각 과별로 매주 월~목요일까지 오후 7~9시
■ 접수문의 : 나라다상장불학원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내

나라다상장불학원

한국불교예술대학 제6기 전수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 9호(직방무 기능보유자) 이신 三麟(金海嶺) 큰 스님의 범법(梵唄)과 범무(梵舞)를 전수교재 제 5기 전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모집과정 : 기초과정
■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 교육기간 : 각 과정 4개월 기본(1년 과정)
■ 모집기간 : 3월20일 ~ 4월20일까지
■ 강의내용 :

Table with 2 columns: 교육과정, 교육내용. Rows include 기초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연구과정.

- 강사진 : 한정섭 법사, 김진하 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직방무 준보유자)
■ 강의시간 : 매월 2, 4째주 수, 목요일 강의
■ 특전 : 전 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을 수여함.
■ 문의처 : 한국불교예술대학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내